

# 감자 가격 또 오른다... 올해도 수급 불안 우려

광주 20kg 도매가 평년비 11% ↑  
농촌경제연 “4월에 더 오를 것”  
지난해 ‘감튀 대란’ 재연 조짐  
관련업계 “수입선 다변화해야”



26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감자가 진열돼 있다. 지난 24일 기준 광주지역 감자 20kg 도매 가격은 평년 대비 11%가량 높은 4만6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감자 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감자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고온현상과 가뭄 등으로 감자 수급 불안을 겪었던 가공식품업계에서는 해외 수입선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광주지역 감자 20kg의 도매가격은 4만6000원으로 평년(4만771원) 대비 1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2주 전인 10일 5만원선에서 상당히 내려간 수준이다.

소매 가격 역시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감자 100g 가격은 지난 24일 기준 400원으로 평년(332원) 대비 17% 올랐다.

문제는 오는 4월에도 감자 가격은 더 상

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월 농업관측에 따르면 내달 감자(수미) 도매가격은 20kg 7만~7만5000원선으로 지난해 4월(6만6999원)과 비교해 4~12%, 평년 가격과 비교해서는 최대 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장 물량 부족으로 지난해 대비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감자는 생육기인 이달에도 저온현상으로 출하량의 품질이 떨어지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 봄 감자 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

하면 일정 부분 상승폭이 안정세를 보일 지라도, 원천적으로 이상고온현상이나 저온현상, 가뭄 등으로 출하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감자칩 등을 생산하는 제과업체나 감자튀김 등에 물량이 다량 필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미 감자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가공식품업계에서는 대부분 5~9월에 주생산되는 국내산 감자를 사용하되, 국내 재배 일정과 수급에 따라 수입산 감자를 활용하는데, 현재 국내 정책상 감자의 경우 미국, 호주 등 특정 지역에서 재배한 감자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오세아니아 지역 홍수 등 글로벌 기후변화와 물류대란으로 인해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감자튀김, 웨지감자 등의 메뉴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시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를 시작으로 롯데리아, 버거킹

등의 햄버거세트에서 ‘감자튀김’이 실종되며 이른바 ‘감튀대란’으로 불리기까지 했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오는 6월 또 한 번의 ‘감튀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기후 이상으로 주수입처인 미국과 호주의 감자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국내산 감자 역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자를 주원료로 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오리온의 경우 지난달 정부와 주요 식품 회사와의 물가안정 간담회에서 수입 국가 다변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원재료 인상 등으로 기업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전약정과 수매를 통한 수급 안정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제네시스, 연식 변경 ‘2023 G90’ 출시

슈퍼차저 엔진 추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연식 변경 모델 ‘2023 G90’ (사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2023 G90은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e-S/C) 엔진을 일반 모델에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으며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시켰다.

일반 모델에도 기존 롱휠베이스 모델에만 탑재됐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추가해 더욱 여유로운 동력성을 갖추게 된 2023 G90은 이외에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주차 충돌방지 보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앞좌석 프

리 액티브 시트벨트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에서 뒷좌석 도어를 자동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지 클로즈 기능 사용성도 강화했으며, 엔진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소리로 변환해 더욱 실감나는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는 ESEV도 새롭게 적용했다.

이외에도 일반 모델에 신규 디자인의 21인치 휠을 선택 사양으로 추가하고, 기존 2가지로 운영했던 추천 사양 조합을 파플러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 등 3가지로 확대해 고객별로 더욱 세분화된 맞춤 사양 조합을 제공한다. **곽지혜 기자**

## 광주은행, 고향사랑기부제 가두캠페인 전개

광주송정역·버스터미널 등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고향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가두캠페인은 광주송정역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목포역과 순천역, 서울여의도 지하철역에서 영업본부별로 팀을 나눠 오전 8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고병일 은행장은 광주송정역에서 본부 임직원들과 함께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장을 일일이 전달하며 홍보하고,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고병일 은행장은 “더 많은 고객 및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뜻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어 임직원들과 함께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고병일 은행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을 펼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광주·전남 지자체 총 26곳에 고병일 은행장이 개인적으로 500만원, 광주은행 임원들이 총 17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광주은행 임직원들 또한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확산을 위한 릴레이 이벤트를 펼쳐 본부 부서·영업점별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기부 답례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는 등 나눔과 지역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권범 기자**

### 제106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10 24 33 38 45	36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8억9823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4366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91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금감원 Q&A

**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월별 운전자보험 계약건을 살펴보면 2022년 7월에는 39.6만건, 9월에는 39.9만건 정도였으나, 11월에는 60.3만건으로 지난달 보다 20만건(51%p) 가량 증가했다. 앞으로도 운전자보험 계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운전자보험의 특징 및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답** 첫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둘째,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상해사고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과거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는데, 최근 대다수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반드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 따라서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는 보험금도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뺑소니(사고 후 도주)로 인한 자동차사고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다섯째,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

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가입자 대상으로 보장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할 때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